공동체 소식

부활 제6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 오늘은 '부활 제6주일' 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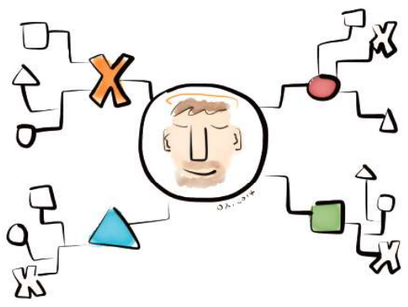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5/28(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

▣ 북미 중남미 지구,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안내

- 일시 : 2017/5/25(목)-28(주일) 3박4일
- 장소 : Holy Name Passionist 피정센터, 휴스턴.

▣ '재무위원' 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신청은 평협회장님께 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논리는 그리스도께 중심을 둡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앞서 가는 사랑, 안으로부터 우리를 변모시키는 사랑,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사랑에 철저하게 개방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신앙의 빛」 20항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131	512	180	245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이원준 요한
	문예나 요안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 헌금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4	40명	267달러	0달러
(총 0세대)			

부활 제6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7년 5월 21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시고 불멸의 삶으로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보호와 이끄심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며, 우리가 간직한 부활의 희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진리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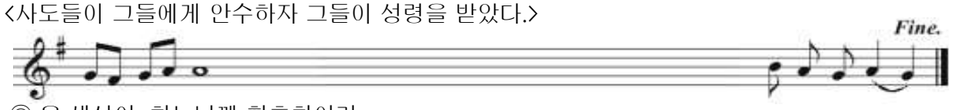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14,17)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이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현존으로 이끄시어 나날의 삶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5-8.14-17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화 답 송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 2 독 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5-18<또는 4,13-16>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1<또는 17,1-11ㄴ>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쉐 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 13,34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이제 곧 떠날 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당신 사랑을 완성하신 뒤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당신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당신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요한 14,21).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에 당신의 부활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이들이고, 하느님을 아는 이들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떠나신 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을 위해 다른 보호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청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호자는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는 영이자(요한 14,17 참조),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입니다(요한 20,23 참조). 그리고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올바로 깨닫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오로도 1코린 12,3에서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참된 진리를 알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보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 진리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1,8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리면 제자들은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오늘 1독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제자들의 증언이 세상 끝, 곧 로마에까지 이르렀음을 전해줍니다(사도 28,17-31 참조).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은 로마를 넘어 오늘날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에게 내렸던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들입니다. 보호자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2독서의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며, 바른 양심으로 온유하고 공손하게 믿음과 희망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다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성령을 기억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이들, 진정 당신을 아는 이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방사, 축복, 축성의 차이는?

신부님! 이 묵주를 ‘방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는 ‘축성해 주세요’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인가요? 정답은 ‘축복해 주세요.’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고상이나 묵주, 패와 메달 등을 축복할 때에 방사(放辭)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성물에 축복하는 말씀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祝福)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축복이란 베네딕시오(benedic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좋은’(bene)과 ‘말’(dictio)의 합성어로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말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 원하는 사람, 교우들의 다양한 세속 활동을 위한 건물, 즉 새집, 사무실, 공장, 가게, 학교, 병원 등과 자동차나 전례에 사용되는 감실, 십자가, 공적으로 전시할 성화상 등에 축복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신심 생활을 돕는 묵주, 스카풀라, 성모상, 성인상 등에 행합니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창세 39,5)

반면에 축성(祝聖)은 콘세크라시오(consecra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con)와 ‘거룩함’(sacratio)이 결합되어 ‘거룩함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 거행에서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감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을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그리고 처음 성당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할 때 교구장은 제대를 기름과 기도로 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성직자에 오르는 서품이 바로 축성식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성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축성을 통하여 영원히 하느님께 속하도록, 오직 하느님을 위해 쓰이도록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소유함과 소유됨

갖고 있으나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갖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소유함과 소유됨이 하나 되는
일치의 기적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요한 14,20)

- 임의준 신부